## 南道日報

2012년 07월 03일 (화)
14면 인물

# "공직생활 영광을 체육 발전에 쏟겠다"

## 전승현 전남체육회 사무처장 홍조근정훈장 수상

전승현(사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이 38년여의 공직생활을 마치며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전승현 사무처장은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38년여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전 사무처장은 "훈장 수상은 공직자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니겠느냐"며 "나름대로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했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재임하면서도 전남 체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지방이사관으로 퇴임한 뒤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1973년 12월에 입용해 38여년간의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공직관으로 연구·노력하는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또 항상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해 도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 사무처장은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반영된 목포-광양 등 8지구의 고속교통망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성공 개최 기반 구축, 해양관광 인프라 확보, 영산강 삼리기 연계사업 추진 및 내륙 연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주요 SOC사업 확충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신광호 기자 sgh@namdonews.com

17.0 X 15.0 ㎝

## 光州日報

2012년 07월 03일 (화)
18면 지역

### 전승현 도체육회 사무처장 홍조근정훈장

전승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최근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전 사무처장은 1973년부터 지난해 12월30일 전남도 지방이사관으로 퇴임하기까지 38년간 공직생활을 했으며, 지난 1월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7.3 X 5.4 ㎝

## 광남일보

2012년 07월 03일 (화)
18면 인물

# 도체육회 전승현 사무처장 홍조근정훈장

### 38년 공직생활 공로 인정… "전남 체육 일조할 것"

전남체육회 전승현 사무처장이 38년간 공직 생활을 성실히 수행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일 도체육회는 지난달 30일 전 처장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 처장은 "훈장 수상은 공직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니겠냐"며 ""나름대로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했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973년 12월에 공직에 몸을 담은 전 처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공직관으로 연구·노력하는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또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 도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30일 지방이사관으로 퇴임한 전 처장은 올 1월26일 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 처장은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재임하면서도 전남 체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소연 기자 sypassion@

16.7 X 8.8 ㎝

## 전남매일

2012년 07월 03일 (화)
14면 인물

■ '홍조근정훈장' 전남도체육회 전 승 현 사무처장

# "전남 체육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

## 38년 공직생활 지역사회 위해 꾸준한 자기계발 공로

"훈장 수상은 공직자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나름대로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했던 결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승현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38년여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다.

지난해 12월 30일 재임이사관으로 퇴임한 뒤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 처장은 1973년 12월에 임용해 38여년간 공직에 몸담아 왔다.

전 처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공직관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항상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 도정·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평이다.

전 처장은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반영된 목포-광양 등 8지구의 고속교통망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성공 개최 기반 구축, 해양관광 인프라 확보, 영산강 삼리기 연계사업 추진 및 내륙 연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주요 SOC사업 확충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이순신대교) 건설사업 추진,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 신안 다이아몬드 연도교 건설 등 도서와 내륙간 접근로 확충으로 소외지역 섬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서지역에 대한 광주 요건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관광권 관광자원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토목전문기술과 행정능력을 겸비해 업무추진 능력이 탁월하고 직무연찬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자기계발을 멈추지 않았으며, 직원들과의 화합에도 타의 모범이 되는 등 훌륭한 직장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전 처장은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재임하면서도 전남체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최진희 기자

27.8 X 12.2 ㎝

## 全南日報

2012년 07월 03일 (화)
18면 인물

### 전승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 홍조근정훈장

전승현(58·사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전승현 사무처장은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38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지난해 말 지방이사관으로 퇴임한 뒤 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 처장은 1973년 12월 공직에 입문했다.

투철한 사명감과 연구·노력하는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다했고,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 도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 사무처장은 "훈장 수상은 공직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며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감개무량한 표정을 지었다.

한편 전 사무처장은 전남도 도로교통과장, 지역계획과장을 거쳐 지난 2010년 7월부터 건설방재국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12월30일 퇴임했다.

고강인 기자 kiko@nilbo.com

11.1 X 10.6 ㎝

## 광주매일신문

2012년 07월 03일 (화)
18면 인물

### 전승현 전남체육회 사무처장 홍조근정훈장

전승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전승현 사무처장은 지난달 30일 공무원 재직 기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1973년 12월 공직 생활을 시작한 전승현 사무처장은 38여년간의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30일 지방이사관으로 퇴임한 전승현 사무처장은 현재 전남도체육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전 사무처장은 전남도 건설방재국장 재임 중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된 목포-광양 등 8지구의 고속교통망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성공 개최 기반 구축, 해양 관광 인프라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승현 사무처장은 "훈장 수상은 공직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다"며 "나름대로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했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감개무량한 감정을 표현했다. /임재한 기자 iam@kjdaily.com

11.1 X 10.1 ㎝